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

함평군 보건소 '우수기관상' 수상

함평군 보건소가 지난 24일 담양온천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전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다 향상된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1개 기관이 20개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함평군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행복충전 장애인 주간재활사업'이 선정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행복충전 장애인 주간재활사업'은 관내 장애인 대상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활 운동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통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흥, 인재육성 위한 따뜻한 기부 잇따라

중흥건설·초당대학교, 장학금 기부 '훈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성)는 지난 27일 중흥건설(주)(대표 위건)에서 100만원, 초당대학교에서 100만 8천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주)은 장흥읍에 소재한 건설회사다.

위건 대표는 "장흥군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당대학교는 2014년부터 장흥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에 매회 참여 해왔다.

박람회 수익금을 2019년, 2022년에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부한 바 있다.

초당대학교 박상식 교수는 "통합의학박람회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수익금을 장흥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성 이사장은 "장흥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심으로 인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장성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200여 명 수료생 '배움의 기쁨' 나눠

장성군이 지난 27일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장성군이 3년째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해교사가 직접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화교실부터 금융, 교통 상식,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다수의 수상 기록으로 주목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최현남), 전라남도지사상(김순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강설자, 김남희, 김순애) 수상으로 교육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한 해 동안 한글교실에 참석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상, 수상자 낭독, 활동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수료생들의 글과 그림을 볼 수 있는 시화전은 28일까지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렸다. 22개 마을에서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과 만났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르신들의 삶이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느끼게 한다"면서 "내년에도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기후변화대응 바나나 기반 구축 마련

농업환경 맞는 아열대 재배 기술 정립·육성 첫걸음

36억 투자... 일반농·청년농 7농가 유리온실 지원

화순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중 바나나 기반을 마련하고, 화순군 농업환경에 맞는 아열대 재배 기술 정립 및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화순군은 우리나라 중위도 온대성 기후에 사계절이 뚜렷하였으나, 올해

여름 날씨는 국지성 호우 및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가 연상됐다.

이처럼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선제적 소득 기반을 만들고자 36억 원을 투자 ▲일반농 3농가 ▲청년농 4 농가 ▲325ha의 바나나 유리온실을 지원하여 건축 중이다.

품목으로 바나나를 선정한 이유는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이라는 치명적인 곰팡이로 세계 최대 바나나 산지에 바나나 병이 확산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노지 재배의 고품질 바나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구적인 유리온실을 설치, 지역 적응성이 높은 바나나 품종을 심는 방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한우 사육 농가와 연계하여 바나나 농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축산 경영비 절감을 도

모하고, 바나나 한우를 브랜드로 출시하는 노력도 사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망고에 비해 바나나는 식재 후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적게 소요되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바나나가 전국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 중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군-태영티에스, 고향사랑 상호업무 협약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적극적 홍보 나설 것”



담양군이 28일 담양군과 ㈜태영티에스(대표 김준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태영티에스의 김준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 측에서는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했다.

㈜태영티에스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 김준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군 금성중학교 전교생 15명에게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

소에도 담양군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김준규 대표는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준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라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전해 주신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행

장성군이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5000㎡(약 1500평) 이상인 인허가 현장이다. 장성지역 내에선 대형건축물, 태양광 시설, 관광농원, 대지 조성 등 총 14개 현장이 해당된다.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개발민원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군은 비탈면,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 예상지역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설작업용 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도 파악하고 비상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강설·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 대책도 점검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을 확인한다.

겨울철 사용 빈도가 높은 화기 및 인화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그밖에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도 확인한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동절기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선제적 제거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 국회 재차 방문 국비확보 '총력'

국회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 지역 현안사업 반영 요청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27일 국회를 재차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정책위의장과 국민의 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8건 1,592억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특화 브랜드사업(종교순례 테마관광명소화사업 184억 원,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394억 원),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85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79억 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170억 원),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200억 원), ▲2024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 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375억 원) 등이다.

앞서, 22일과 23일에도 강종만 군수는 9명의 국회 예결위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영광군 현안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강종만 군수는 "바쁘신 국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현안 목소리



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개호, 유의동 정책위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고, 군민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더 좋은 미래 영광 건설을 위해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